

## 순천만 희귀철새 27종 3만마리 월동



지난 겨울 월동을 위해 순천만을 찾은 재두루미떼(천연기념물 203호)가 들녘에서 먹이를 찾고 있다. 전봇대 제거와 습지복원 등 순천시의 생태정책에 의해 서식지 환경이 좋아짐에 따라 월동 개체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지난 겨울 125종 5만여마리 찾아 개체수 크게 증가

### 습지복원·경관농업 등 생태관광지 조성 노력 성과

지난 겨울 순천만에서 월동한 희귀 철새가 크게 증가하는 등 서식지 보전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겨울동안 순천만을 찾은 철새는 총 125종 5만866마리로 지난해 비해 전체 개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만에 월동하는 두루미류는 지난해 452마리에 비해 70여 마리 이상 크게 증가한 525마리가 월동했고 10

여년전과 비교하면 7.5배 늘어난 것이다. 멸종위기종인 흑두루미와 재두루미, 가창오리, 황새, 검은머리갈매기 등 희귀철새들도 27종 3만1548마리가 월동했다.

이 가운데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에 등재된 종 9종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24종 ▲천연기념물은 16종으로 확인되어 순천만이 희귀철새들의 서식지로서 보전 가치가 높은 곳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그동안 거의 월동하지 않았던 희귀조류 개리와 재두루미들도 지난해 겨울에 이어 안정적으로 2~4개월 동안 월동하고, 순천만에서는 첫 사례인 가창오리 3만마리가 새롭게 조성된 복원습지와 갯벌에서 머물렀다.

이러한 순천만 희귀 철새의 증가세는 순천시의 생태관광 정책이 크게 일조했다.

순천만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생태관광지로 지난해에는 295만명이 다녀갔으며 방문객 증가하는 잠재적인 위협에도 불구하고 농경지와 갯벌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관리로 철새 서식지가 악화되지 않아 흑

두루미를 비롯해 다양한 희귀철새들이 꾸준히 월동할 수 있었다는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순천시 관계자는 “지난 2007년부터 전봇대 제거를 비롯해 순천만 주변 곳곳에 습지 복원과 철새를 위한 출입통로, 경관농업 등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상생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 2008년부터 매월 철새조사를 실시 순천만에 도래하는 철새의 증감 등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번 결과를 종합 검토한 철새보고서가 상반기내 발간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김은총기자 ejkim@

## 장성의 5월, 눈과 입이 즐겁다

### 황룡강변 유채꽃·장미공원·축령산 치유의 숲 탐방객 북적

“장성에서 일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연과 함께 달콤한 휴식을 즐기세요.”

5월 들어 장성 축령산과 황길동 테마파크, 황룡 강변, 평립댐 장미 공원 등이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황룡강변 유채꽃·평립댐 장미=영산강의 최상류 지역인 황룡강을 따라 장성댐 하류와 황룡강변 10만m<sup>2</sup> 부지에는 유채꽃을 비롯해 꽃잔디, 페주니아, 메리골드 등의 초화류가 만개해 관광을 연출하고 있다.

삼계면에 위치한 평립댐 장미공원<사진>에도 140여종 1만 4000주

의 장미꽃이 형형색색 자태를 뽐내며 꽃망울을 터뜨려 이달 중순부터 관광객들을 맞이한다. 특히 장미공원에는 자연형 폭포를 비롯해 잔디

축구장, 텁 전망대, 산책로 등의 휴양시설이 조성돼 있어 직장이나 학교 등 단체 아유히 장소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전국 최대 편백나무 숲 축령산=편백나무에서 뉘른지 드 성분이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가운데 최근 개장된 장성 축령산 ‘치유의 숲’에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다. 특히 장성군은 지난해부터 779ha 규모의 편백나무 숲을 감아도는 ‘축령산 둘레길’ 조성을 추진, 조만간 일일코스 19km, 반일코스 11km 등 6개 코스를 개통할 예정이다.

축령산 자락의 뒤편에 자리한 ‘금곡 영화마을’은 다수의 세트장이 그대로 보존돼 있으며, 편백나무 목공예와 대나무 차를 만들어 보는 체험도 즐길 수 있다.

◇홍길동테마파크·백양사 가인마을 야영=23만m<sup>2</sup> 규모의 ‘홍길동 테마파크’와 백양사 가인마을 오토 캠핑장도 주말이면 여행객들로 북적이다. 여행장에는 데크, 취사장, 샤워장, 공연장 등 야영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다.

가인마을 오토캠핑장은 맑은 공기와 함께 백양사 절경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으로 꼽힌다.

이 밖에도 장성호 하류의 미라 단지에서는 메기찜 등 각종 민물 고기 요리의 미락(味樂)을 즐길 수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5월 들어 장성 8경을 비롯한 각종 볼거리와 체험거리, 먹을거리가 관광객들의 발길을 유혹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 아르헨티나산 명마 ‘본비반트’ 장흥에 등지

### 코리아 스텔리온 팜 기증식

### 신성장 동력 ‘말 산업’ 탄력

장흥군은 지난 9일 장동면 위탁 사육농가에서 아르헨티나산 명마(名馬) ‘본비반트’<사진>기증식을 가졌다.

코리아 스텔리온 팜은 지난 2004년 국내에 수입된 후 제주에 머물면서 씨수발 역할을 해 온 ‘본비반트’를 장흥군에 무상으로 기증했다.

이에 따라 장흥군은 ‘본비반트’를 직접 관리·사육하게 됨으로써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종인 ‘말(馬) 관련 산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유일의 아르헨티나산 ‘본비반트’는 국내외 각 종 경주대회에서 12회의 우승 기록을 가진 명마로서 현재 나이 14세(사람 나이 35세가량)이며, 2005년부터 교배를 시작해 지난해까지 모두 62마리의 자마를 배출했고 그 중 일부는 경주마로 뛰고 있다.



기증자인 권승주 코리아 스텔리온 팜 대표는 “장흥군이 적극적인 말 산업 육성 의지와 함께 토양 환경, 기후, 수질 등 평평 말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3대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어 기증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장흥군은 장동면에 초기화 조성돼 있고 방목이 가능한 축사에서 최적의 조건으로 ‘본비반트’를 사육해 씨암발 교배용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충부취재본부=김용기자 kykim@

### 여수지역 철도역명 개정

### YMCA 주관 시민공청회

여수지역 철도역명 개정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철도역명 개정 시민공청회’가 18일 오후 2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다.

여수YMCA가 주관하는 이날 공청회에는 여수 환경연합, 전남 연대회의 등 시민단체와 교수, 지역 언론인, 여수시의원들이 참석해 역명 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달 열린 간담회에서 시민 여론을 좀 더 정확하게 수렴해 달라는 시의회측 건의와 시민의 견을 충분히 모아 달라는 한국철도공사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현재 구 ‘여수역’을 ‘엑스포역’으로 구 ‘여천역’을 ‘여수역’으로 개정중인 역명개정 추진상황은 전남도 협의를 거쳐 한국철도공사에 역명 개정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여수지역 철도역명 개정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철도역명 개정 시민공청회’가 18일 오후 2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다.

여수YMCA가 주관하는 이날 공청회에는 여수 환경연합, 전남 연대회의 등 시민단체와 교수, 지역 언론인, 여수시의원들이 참석해 역명 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달 열린 간담회에서 시민 여론을 좀 더 정확하게 수렴해 달라는 시의회측 건의와 시민의 견을 충분히 모아 달라는 한국철도공사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현재 구 ‘여수역’을 ‘엑스포역’으로 구 ‘여천역’을 ‘여수역’으로 개정중인 역명개정 추진상황은 전남도 협의를 거쳐 한국철도공사에 역명 개정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 순천만 ECO 국제걷기대회

### 21~22일 이틀간…정원박람회 성공 기원

‘2013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제1회 순천만 ECO 국제걷기대회’가 오는 21~22일 이틀간 순천만에서 열린다.

(사)한국체육진흥회 한국기아연맹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지구의

정원 순천만’이라는 주제로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외국인들이 대거 참여할 계획이다.

주요 코스는 가족 단위로 참가할 수 있도록 10km, 20km 2개 코스와 자전거 코스 20km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날인 21일에는 순천만 생태공원을 출발해 동천을 경유 순천만까

지, 22일에는 순천만 생태공원을 출발해 별량 화포를 경유, 순천만 생태공원으로 돌아오게 된다.

참가신청 및 문의는 기획감사과

(061-749-3010), 관광진흥과(061-

749-3328), (사)한국체육진흥회 사무국(02-2274-7077)으로 하면 된다.

한편 순천시는 생태탐방로인 ‘남도 삼백리길’ 3개 노선 11개 코스 223km

를 조성하고 생태관광 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순천만과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주요 관광지를 연계

다양한 코스를 추가로 개발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김은총기자 ejkim@

### 화순고 체육관 개관식

### 화순고등학교(교장 박래섭)는 12

일 체육관(화순관)과 기숙사(만연학

사) 개관식을 가졌다.

화순고는 화순군에서 5억5000만원

의 예산을 지원받아 다목적 체육관을

완공했다. 체육관 1층은 400여명의

학생을 수용하는 급식실이 있고, 2층

은 5번의 배드민턴 경기장을 갖췄다.

또 총 예산 55억여만원을 들여 216

명을 수용하고, 멀티실, 학습실, 심화

학습실, 휴게실 등을 갖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기숙사를 증축했다.

한편 화순군은 양질의 명품 교육을

통해 우수 인재발굴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충부취재본부=정운수기자 unsu@

### 대인동삼일부동산

####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순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을 사실분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드리겠습니다.

다면,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을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 222-1772 휴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점, 대인동 소방서전라편)

### 금당 공인중개사

#### ■ 감정가 이하

- 도곡온천 무인모텔 객실 70 감정 48억 대출 30억 범인아전 39억
- 생활동 상가·목욕탕·주택 대지 111 건평 367 대출 5억 보증금 2억 3200만원 월세 798만원 매도 11억 3천
- 교회건물, 구시청(아파트) 옆 대지 71 건평 239(4층 건물) 노인요양시설 포함 은행 1억 7300만원 매도 5억 4천
- 대인동 소방도로코너 5층상기건물 대지 67 건평 210 공시지가 2억 8천 디arden 사용 4억 6천만원
- 우동 모텔 대지 133 건평 306 요당시설적합 6억천
- 유종동 땅 1632평 청고 350평 공시지가 14억 2천 매도 21억
- 교회부지 내동동 484평 대출 7억 매도 8억 9천
- 금남로5가 대로변 대지 496 건평 872 공시지가 5억 2천 2천
- 회수이야금 소재지 국도점 주거지역 596평 창고·공장적합 대출 5천 5백 공시지가에 매도 8700만원
- 금남로5가 대지 80 건평 300 공시